

해남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7개월만에 10만명 돌파

군 인구 6만3000명의 1.6배
유명 관광지 등 24곳 할인 혜택
생활인구 유치 경제 활성화 효과



해남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해남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시행 7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해남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는 10만17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해남군 인구 6만3000여 명의 1.6배에 달하는 숫자다. 해남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10만 명 돌파는 7개월 만에 달성할 수 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4개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의 발급 속도를 보이

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외에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점이나 체험·관람·숙박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공식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외 거

주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해남군의 경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에게 두륜산케이블카, 명랑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24곳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해남에서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는 두륜산 케이블카였으며 이어 명랑해상케이블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해남고구마빵 피남시에, 포레스트수목원 등의 순서를 보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광객 등 생활인구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할인업소 확대와 발급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해남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릴 나가지"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관계자가 비금면 개인정원 등록자에게 명패를 나눠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 서측 해안도로 '가리포 노을 테마길' 조성한다

2026년 6월까지 40억원 투입

완도군은 완도를 대신리~군외 당인리 국도 77호선 해안도로에 '가리포 노을 테마길'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테마길 대상지는 완도를 대신리 소재포에서 군외면 당인리 마을까지 완도 서측도로로 해안 경관이 빼어난 지역이다. 완도군은 이 구간에 총 사업비 40억원(국비)을 투입해 데크길과 전망대, 마을길 정비 등 노을 테마길(2.15km)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17km 구간의 데크길은 당초 천연목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염해 부식과 강풍으로 인한 파손 위험 등을 고려해 알루미늄으로 재질을 변경했다. 바다 난간 등에는 형형색색의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볼거리도 제공한다. 완도군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변경 승인과 전남도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오며 오는 2026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리포 노을 테마길이 조성되면 국립난대수목원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석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가리포 노을길이 주민에게는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꼭 한번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를 대신리~군외 당인리 국도 77호선 해안도로 '가리포 노을 테마길' 조감도.

신안군 개인정원 가꾸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박차

신안군은 지역 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은 '1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안군은 개인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원주들에게 개인정원 명패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가꾸는 정

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개인정원 등록자는 129명에 이르며, 개인정원 등록 신청은 각 읍·면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정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전국 지자체 최초 '신안정원김밥' 상표권 출원

세계김밥페스타 지식재산권 확보



신안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 김밥축제인 '신안세계김밥페스타'의 상징성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신안정원김밥'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신안정원김밥은 신안세계김밥페스타에서 인기리에 판매됐던 김밥으로 사계절 꽃피는 신안의 정원을 형상화한 것으로 당근, 양배추, 양파 등이 재료인 채식 김밥이다. 신안정원김밥의 상표는 김밥재료인 지역농산물들이 미소 짓는 귀여운 캐릭터로 국내외의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했다. 신안군은 오는 4월 자은도 무지업파크에서 신안

세계김밥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김밥페스타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도 개발해 MZ세대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신안정원김밥 상표권 출원을 통한 신안김밥의 브랜드 차별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소아청소년 보건 특정 모금

진도군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특정사업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도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해 군민의 의료 여건을 강화하고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목표모금액은 5억원이며 3년간 진행된다. 기부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한 후 '진도군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해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까지 주문하면 된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치매안심택시 이용률 227% 증가

2023년 209건→2024년 683건

영광군이 치매 환자와 보호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 중인 '무료 치매안심택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2023년 9월 처음으로 도입한 치매안심택시 이용 건수가 첫해 209건에서 지난해 683건(227%)으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도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이동 편의를 위해 영광군모범택시운전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지속한다. 치매안심택시는 치매 환자의 거주지에서 영광군치매안심센터 또는 군남면 분소를 오갈 때

무료로 왕복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 시책이다. 영광군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치매 관련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영광군 치매안심센터(061-350-48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평화광장에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지상 2층 규모 9월 완공

목포시가 목포시와 무안·신안·영암 등 서남권 9개 시군을 아우르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에 들어설 관광플랫폼은 지난 2023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이 마련되고, 방문객을 위한 안내데스크와 수유실도 포함된다. 2층은 기념품 등 지역 관광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15인승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플랫폼은 서남권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안내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하고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 플랫폼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은 지

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무안군, 상품 개발·판매 '식품 창업자' 모집

11명...다음달 7일까지 신청

무안군이 다음 달 7일까지 펀딩을 통한 상품개발 및 판매 경험 (식품)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펀딩을 통한 상품개발 및 판매 경험 (식품)창업 지원사업은 무안군 특산물을 활용한 농수산 가공 식품을 개발해 선주문 후생산(펀딩) 진행 지원을 통해 저자본 창업 및 자본금 확보, 상품성 개선을 통한 지역 생산자와의 상생을 도모해 유망기업 발굴과 간접 고용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명이며, 먼저 참여자를 모집해 사전 사업 참여에 관한 컨설팅과 상품 상용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후에 심사를 통해 창업 지

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만 18세 이상 무안군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중 2024년 기준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선정되면 1인당 최대 360만원의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추후 상품 개선 컨설팅과 추가적인 펀딩 지원비용 350만원을 받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펀딩 창업 지원사업은 관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온라인 시장에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전기·수소차 170대 구매보조금 지원

대당 최대 1080만원~3500만원

목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60대(승용, 화물)와 수소자동차 1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는 승용차 최대 1080만원, 화물차 최대 1850만원이며 수소자동차는 대당 3500만원까지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가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목포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 시작일은 오는 17일부터이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ps)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목포시 기후환경과(061-270-8675)로 하면 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